

법회안내

**분당 천은정사** (0342)701-0770  
초하루기도 매월1일(음) 오전10시  
보름기도 매월15일(음) 오전10시  
◇주지 우항스님

**지장재일기도** 매월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기도** 매월24일(음) 오전10시  
**원효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초하루 특법기도 1월28일~2월3일(2) 오전10시

**삼선포교원** (02)922-9652  
정기법회 매 주 화요일 오전10시  
초하루 기도 매 주 토요일 오후3시  
◇주지 지관스님

**중·고생법회** 매 주 토요일 오후5시  
**창원회법회** 매 주 토요일 오후7시

**삼척 삼장사** (0397)73-2487  
어린법회 매 주 토요일 오후3시  
일산산도법회 매 주 일요일 오전10시  
관음재일기도 매월24일(음) 오전10시  
초하루기도 매월1일(음) 오전10시

**호국 총경사** (0662)72-4207  
수요법회 매 주 수요일 오후7시  
일요일법회 매 주 일요일 오전10시, 오후7시  
초하루기도 매월1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기도 매월24일(음) 오전10시

**대불산원** (032)343-5046  
초하루법회매월1일(음)오전10시30분  
묘법연화경 강의 및 사경법회 매 주 월요일 오전10시30분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주지스님(대표)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수첩

설산수도 깨달음 되새겨 룸비니대학생 설광대회

6년간의 설산수도로 깨달음의 터전을 닦은 부처님, 이런 의미를 되새기며 불자로서 수행도를 품소 익히고자 마련한 프로그램이 있다.

룸비니대학생회(회장 박형근)가 2월2일부터 5일까지 3박4일동안 속리산 법주사에서 갖는 '88 룸비니 설광대회'가 그것.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입산법회' '룸비니 가요제' '신행수첩' '속리산 산행' '죽공 연극' 등으로 진행된다. (02)3662-7432

"초발심 불자들 오세요" 강남포교원 근본불교학당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 현재 절에 다니고 있지만 불교의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불자들은 이곳으로 오십시오.

강남포교원(원장 성열)은 2월3일부터 3월31일까지 두달간 '근본불교학당'을 개강한다.

매 주 화·금 오후 8시에 실시되는 이번 강좌는 강남포교원장 성열스님, 김상경 중앙승가대 교수, 설성경 연세대학교수 등이 불교의 오묘한 맛을 일깨워 준다.

강의 내용은 △부처님의 생애 △부처님의 깨달음 △불교문화 △불교경전 소개 △불교와 우리 문화 등이다. (02)539-2631

"작은 변화 큰 깨달음" 대불련 백양사 수행학교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대동단결로 국난 극복 덕유복지관 대보름인속놀이

덕유사회복지관(관장 영담스님)은 2월8일 '대보름맞이 인속놀이 한마당'을 마련한다.

예로부터 마을단위의 협동과 친목으로 마을을 굳건히 하고 환난을 극복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던 우리의 전통인속놀이인 옷놀이, 신발던지기, 닭싸움, 투호, 제기차기, 줄다리기 등을 통해 잊혀져가는 우리의 놀이문화를 되살린다. 지역주민과 어울리며 다져진 친목과 화합은 IMF 한파를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032)325-2161



◇대불련 수행학교의 도반 느끼기 시간. 손에 손을 맞잡고 한마음 한뜻으로 더불어 사는 자세를 기른다.

게시관

(02)806-1375  
△불교사상=한국불교연구원(원장 정병조)은 2월10일부터 14일까지 제119회 불교사상 강좌를 실시한다. 강사는 정병조 동국대 교수. (02)3411-6167

△간병인=바라길간병인협회(회장 효종스님)는 만55세 이하 불자 간병인을 모집한다. 수시로 접수하며 일정기간 교육 수료 후 취업가능. (051)637-5551

△지압자원봉사자=서울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스님) 마포재가노인복지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맞사지 및 지압을 해 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자격요건은 체대, 간호대학생 남·여 약간명, 자원봉사 학

점 인정 가능. (02)365-3677  
△자광원 자원봉사자=성남 자광원(원장 김경자)은 무의탁·치매노인들에게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실천할 자원봉사자를 기 다린다. (0342)759-5320

△설맞이 현물후원자=부산 금사회복지관(관장 정영스님)은 독거노인을 비롯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50세대에 현금 및 떡국을 브시할 후원의 손길을 기 다린다. (051)893-5034

△청소년 자원봉사단원=대전 범종중합사회복지관(관장 보안스님)은 농촌봉사, 거리홍보, 자원봉사 캠프 등에 한달 1회이상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 자원봉사단 제3기 단원을 모집한다.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 이상, 30일까지 접수 마감. (042)633-1141

△사찰 고시원생=고려선원 잠실본원(원장 영산)은 열심히 공부에 전념할 고시생들을 모집한다. 고시원은 특수방음벽을 설치한 조용하고 편리한 시설. 합선지도도 병행. 회비는 월 15만원부터. (02)412-9495

△팔공산 깃바위=서울 광림사 연화복지원(원장 해성)은 2월7일부터 8일까지 무박2일동안 팔공산 깃바위로 성지순례를 간다. (02)202-5831

△천태중 금강불교대학(학장 이재창)은 21일 서초구 우면동 60번지 관문사로 이전했다. (02)576-6401

나의 수행일기



〈前 동국대학교수〉

17년전 동국대학교를 정년퇴임한 후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러다보니 부처님을 믿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저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빌기만 한 기복에 있어 살아오게 되었다.

그런데 4년전이었다. 자정부터 새벽내내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는 수행법을 실천하게 되었다. 이 기도는 〈금강경〉 내용의 핵심인 '실무중생 특별도자(실로 말도할 중생이 본래 없다)'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잠이 본래 없다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었다.

'잠이 본래 없다'는 〈금강경〉 말씀에 깊은 신심을 내면서 철저한 '자기행정진기도' 및 철야기도를 실천 수행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그동안 피를 말리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럴때마다 목숨을 걸다시피 결사적으로 기도정진을 하였는데, 그 결과 그렇게 참기 힘들었던 잠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고 잠이 줄어들는 것에 반비례해서 신기하게도 기분은

입했던 결과 고산병도 이겨낼 수 있었다. 그야말로 〈금강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득수지독송(得受持讀誦)' 즉 어떠한 경우라도 〈금강경〉을 독송하던 분명한 '무량무변한 공덕'이 있다는 것이 틀림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참으로 값지고 고귀한 체험이 아닐까 여겨지면서, 요즘처럼 어려운 IMF시기에 마음 깊이 새겨 보아야 할 소중한 실례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기도 덕택에 잠이 어느 정도 해탈된 어느날 새벽에, 참으로 광명천지가 눈앞에 전개되는 듯한 황홀한 감격을 체험할 수가 있었다. 보살의 초발심(初發心) 환희지(歡喜地)가 있다고 하더니 그 환희심이란 바로 이런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래서 '잠이 본래 없다'와 '모든 분별이 본래 없다'라는 부처님 말씀에 더욱 깊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체험이 나 뿐만아니라 함께

"마음 밖에서 무엇을 찾을까" 금강경 수지독송... 잠·가난·질병 극복

더욱 상쾌하고 생활은 항상 즐거웠고, 83세라는 연령은 어느덧 잊어버려 마음은 더욱 젊어지고 씩씩해져 있음을 알게 되었다.

비단 잠 뿐만이 아니었다. 그동안 퇴직할 지 오랜 시간이 흘러서인지 늘

이 기도를 해온 주위 도반들도 느꼈기에 이런 체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편백책이, 이면에 출판된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신우당)이다.

이 책을 통해 불법을 모르는 이에게는 부처



공색한 생각이 노후의 삶에 많은 짐이 되었는데, '가난도 본래 없다'라는 믿음으로 꾸준히 이 수행을 하다 보니, 어느새 마음이 든든해짐과 동시에 돈을 원했던 것도 아난데 돈이 생겨 생활이 윤택해지고 매사가 더없이 풍족해지게 되었다. 이 역시 매우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잠이 본래 없다'는 〈금강경〉 말씀을 또다른 측면인 '모든 고난도 본래 없다'에 적용시키기 위해 '바른법 연구원'에서는 지난 여름 티벳 네랄 히말라야 일대로 성지순례를 떠나게 되었다. 〈금강경〉을 꾸준히 독송하고 철저한 자기관리를 하다보니 힘든 고산병을 잘 극복하게 되었고 아울러 영적인 체험도 여러번 하였다.

실질적인 도전정신으로 성지순례에

남을 만나는 기회가 되고, 현실적으로 어렵고 고달픈 이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주게 되어, 우리의 부처님과 더욱 친해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그리고 바른 법과 그릇된 법의 구분 기준이 모호한 요즘 시대에, 마음 밖에서 무엇을 찾는 것은 바른 법이 아니고 마음 안에서 그 원인과 해결을 찾는 것이 바른 법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바로 '바른법 연구원'이다. 정말 이런 일들은 부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남은 생을 더욱 부처님 시봉으로 보람있게 보내고 싶을 뿐이다.

故 윤희순교수는 이 원고를 유문(遺文)으로 남기고 지난 17일 별세했습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빌니다.

고령산 도솔암 증창불사 권선문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께!  
소승은 작년 3월 조계종 25교구 말사인 도솔암으로 주지 임명받아 수행 정진중입니다.  
불조의 혁명을 이어온지 어언 30여년, 이제 이 도솔암에서 마지막 수행정진을 발원하였습니다.  
파주 고령산 도솔암은 드러나지 않은 명찰 기도도로 300여년동안 많은 선사들의 수행정진 내력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일찍기 백용성 조사께서 19세에 경도하시고 혜능선사를 스승으로 서원한 도량이며, 6.25전쟁 이후에는 도형선사께서 정진하시며 증창불사를 이루기도 하셨습니다. 그후로 명멸있는 산신기도도량으로 많은 불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고찰인 관계로 쇠락해 감을 어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빈승이 불조의 높은 뜻을 후세에 길이 보존토록 서원하며, 도솔암 증창불사를 마지막 서원으로 발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우시기에 불사를 계획하며 불자들의 무루 동참을 기원하오니 어려움을 극복하는 복덕 자비 지혜를 심는 계기가 되어 만대의 복원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불기 2542년 무인년 1월  
대한불교조계종 고령산 도솔암 住持 景性昭(성조) 합장  
경기 파주시 광탄면 영장2리 산 50의 4 전화 : 0348-942-7703 / 호출 : 015-345-5158

● 1차 불사 개요 ●  
요사채 1동 - 해체증창불사

대 들 보	600만원	서 가 래	3만원
상 량 대	400만원	기 와10개	7만원
기 등	150만원	기 타	1만원
주 촛 돌	100만원		

■ 은 박인 번호 우체국 011742-0101242 (예금주: 경원홍)  
■ 분할 입금 가능!

법회안내

● 정기법회안내  
- 음 1월 18일부터 보름까지 : 청초불공  
- 음 1월 8일 : 인춘불공 - 음 3월16일 : 고령산 국산재  
- 음 4월 8일 : 부처님 오신날(정일등(1년) 5만원, 일일등(당일) 2만원, 삼성각·인등(1년) 6만원)  
- 음 7월 7일 : 칠월칠석불공 - 음 7월15일 : 백승전도재일  
- 음 10월15일 : 고령산 국산재

● 매월법회안내  
- 음 매월 초하루 : 인종관음법회  
- 음 매월 보름 : 산신기도법회  
- 음 매월 18일 : 지장재일(참회기도)